2024 04
제231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라피 **박진희** 作

02 **좋은글, 좋은 시**

03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04 **구정소식**

05 **2024 대덕구 독서문화 캠페인**

06 **[인물 인터뷰]** 비래동 문충식 어르신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08 **열린의정**

10 **[우리 지역 단체를 만나다]** 대덕구 중리동 2구 원주민장학회

11 **대덕톡톡**

어머니 옥구슬 핸드백

서정미(시인, 대덕문학회 회원)

은쟁반 위에 비췻빛 구슬을 풀어 놓는다
세상에서 가장 앙증맞고 조그마한 옥구슬 폭포가
한 솔기 하늬바람타고 흘러나온다
낭창낭창한 실버들 잎 속에 가두어놓은
옥구슬 핸드백 속살들이 푸르르르 흘러내린다

어머니 인삼보따리에서 튿어진 무명천 조각이
옥구슬 핸드백 속에서 팔락팔락 선잠이 든다
괴산군 불정면 탑뜰 부락 이장님 댁 천 원 외상값
삐뚜루루 적힌 세상에서 제일 조그마한 수첩을
핸드백 맨 밑바닥에 가두어놓는다
푸른 구슬 촘촘히 박힌 핸드백 총총히 풀어 트리는
은쟁반 위 빳빳한 천 원 이천 원짜리 오물딱조물딱
만지작거리며 만들어놓은 어머니 쌈짓돈을
찾아낸다.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4년 4월 5일(제 231호)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오는 13~14일 '팡파르'

대청호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열리는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이 오는 13~14일 양일간 대청공원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대청호 고래, 날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4 대덕물빛축제 -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은 화려한 라인업으로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은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개인 돗자리 지참** 시 더욱 편안하게 관람이 가능하다.

무대를 꾸밀 가수들 라인업으로는 먼저 13일 △실력파 혼성밴드 **'솔루션스'** △TV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을 계기로 결성돼 대중들에게 실력을 각인시킨 **'D82'**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을 노래하는 **'너드커넥션'** △국내 톱 알앤비 그룹 **'멜로망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무대를 장식해줄 인기 밴드 **'LUCY(루시)'**가 포함됐다.

13일 오후 7시 개막식에는 **불꽃쇼**와 **드론쇼**로 하늘을 수놓아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14일 일요일은 △빛나는 목소리 **'예빈나다'** △청춘을 노래하는 가수 **'한로로'** △몽환적인 사운드의 밴드 **'라쿠나'** △가장 가까운 마음의 목소리를 전하는 **'유다빈밴드'** △번뜩이는 위트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소란'** △사계절 내내 따뜻한 음악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폴킴'**이 무대를 오른다.

또 대덕구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신탄진고 네거리~신탄진역 맞은편~현도교(임시주차장)~대청공원 노선과 비상여수로댐둔치(임시주차장)~대청공원** 노선이 있다. **배차 간격은 각 15분, 20분이며, 오후 9시 30분에 막차를 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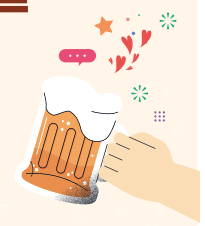
다채로운 공연 이외에도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물빛 플리마켓과 체험부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존을 마련했으며, 대덕물빛축제 기간 동안 해피로드에 고래 설화를 바탕으로한 경관조명이 설치돼 환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꽃 피는 4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에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 껏 즐겨보자.

4/13 (토)
솔루션스 · D82
너드커넥션 · 루시
멜로망스

4/14 (일)
예빈나다 · 한로로
라쿠나 · 유다빈밴드
소란 · 폴킴

지역 수제 맥주 개발 '첫 발'



더랜치브루잉과 맞손…
브랜드 가치 확립·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대덕구가 '대덕구'의 정체성이 담긴 맥주를 개발 및 생산에 나선다.

대덕구는 지난 3월 ㈜더랜치브루잉과 지역 맥주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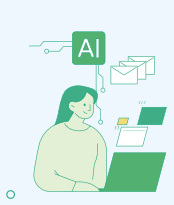
수제 맥주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더랜치브루잉의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대덕구만의 특별한 맛을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 복숭아, 딸기 등 상품성이 뛰어난 농산물을 재료 삼아 대덕구만의 브랜드 및 정체성 확립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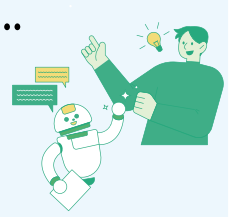
구는 오는 5월 개최 예정된 '2024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에서 생산부터 마케팅 전반에 걸친 시범 운영을 통해 대덕구 수제 맥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수제 맥주 개발 및 생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덕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신탄진도서관 인공지능(AI) 창작실 조성



AI 기능·카메라 탑재 전자칠판 설치…
"구민 AI 활용 능력 강화 기대"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에 발맞춰 대전 대덕구가 신탄진도서관에 '인공지능(AI) 창작실' 2곳을 조성했다.

'신탄진도서관 인공지능(AI) 창작실'은 AI 기능과 카메라가 탑재된 전자칠판을 갖추고 있어 창작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데이터 분석 능력을 극대화하고,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창작 및 강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구민들에게 AI를 직접 경험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능력을 키워나갈 기회를 제공하고자 △챗GPT 활용하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콘텐츠 만들기 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나선다

장동3지구 259필지 항공사진 촬영
행정 신뢰도 향상·효율적인 국토 관리 기대

대전 대덕구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예정된 장동3지구 259필지(15만 8132㎡)를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기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저해상도 항공사진은 각종 구조물 등 현실 경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토지이용 현황 및 필지 경계 확정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구는 최신 드론을 활용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설명 (사진 왼쪽부터) 기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대전 대덕구, 아동 행복 실현 '찾아가는 건강 키움 놀이터' 운영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방문…
체성분·식습관 등 체험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대전 대덕구가 지역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키움 놀이터'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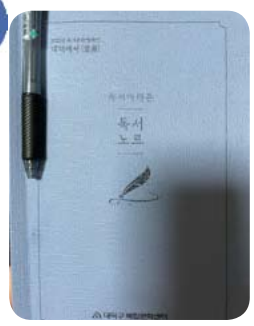
보건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체성분 검사 △기초 체력 측정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스티커 놀이 △치면세균막 검사 및 올바른 칫솔질 교육 △흡연 예방 교육 △건강 퀴즈 놀이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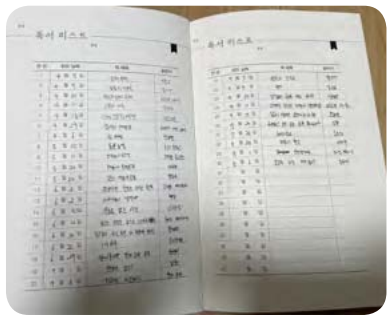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오는 5월까지 21곳의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예정이며, 올 상반기 대덕구 석봉복합문화센터에 북부주민건강센터가 정식 개소한 이후 사업을 확대해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대덕구 북부주민건강센터(☎608-4433)로 문의하면 된다.

독서 습관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2024 대덕구 독서문화 캠페인 독서마라톤





저는 독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독서를 통해 지적 지평을 확장 시키고 스스로의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꾸준히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책을 읽다 보니 책을 구매하는 것 보다는 도서관에 방문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 공간적 절약과 환경을 위해 빌려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도서관에 앉아 차분하게 책을 읽으면 그 시간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되는 것 같아 도서관에 방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대덕구는 신탄진, 송촌, 안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3곳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인 '독서마라톤' 행사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독서마라톤 행사는 개인,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독서량은 15권의 '동춘당', 20권의 '계족산 독서', 25권의 '대청댐' 코스가 있으며, 3인 이상 7인 이내의 단체는 목표 권수 40권의 '대덕애서(愛書)'코스가 있습니다.

신청은 신탄진·송촌 도서관 자료실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안산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이용이 어렵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서 완주 증빙은 신청서 제출 시 제공되는 독서 노트에 감상문, 감상평, 감동 문구 필사, 요약문 등 다양한 형식의 독후 자료를 자필로 작성 후 대덕구 도서관 밴드(네이버 밴드 Booking~)에 게시한 후 도서관으로 완성 노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에 제가 독서노트에 썼던 글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 - 손화신

나를 잃었을 때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글을 쓰지, 글에는 무엇인지를 부탁해 성찰했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강연과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우선 나를 알기 위해 쓰라고 한다. 이 과정을 자아확립 과정이라고 말하며 글을 쓰면 쓸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면서도 삶의 무게감이 제대로 잡히는 경험을 했다. 글을 쓰게 된 이후, 현실에 부딪히며 이리저리 흔들려도 오뚝이처럼 다시 자신을 찾게 되었다. (중략)"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과 느낌점을 담아 독서 노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증을 마치면 오는 11월 중에 완주증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참여하면 아이들 독서 습관 만들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독서마라톤에 참여하고 도서관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빌려 햇볕 좋은 공원을 걷다 잠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한다면 분명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독서 습관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독서마라톤'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 대덕구민 기자단 **이 병 규**

걸어서 대덕속으로

송애당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17번길 60(중리동 115)에 위치한 송애당은 조선 인조(재위 1623~1649)때 문신 김경여(1597~1653)가 지은 별당건물이다.

이후 고종 26년(1889)에 다시 지어져 그의 호를 따서 송애당이라 불리게 됐으며, 지난 1989년 3월18일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송애당은 앞면 3칸·옆면 2칸의 규모로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 형태이며, 구조는 왼쪽 2칸은 대청마루이고 오른쪽 1칸은 온돌방으로 꾸며져 있다.

병자호란의 수치를 당한 송애당 김경여가 부모를 모시고 이곳에 집을 짓고 자신의 호를 따서 송애당이라는 현판을 걸고 은거했던 곳이다.

특히, 송애(松崖)는 '눈서리를 맞아도 변하지 않는 소나무의 곧은 절개와 높이 우뚝 선 절벽의 굳센 기상을 마음에 간직하겠다'는 뜻으로, 김경여의 기개와 충성심이 절도 느껴지는 곳이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재능기부로 연 인생 2막,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 비래동 문충식 어르신

중등 국어 교사 정년퇴직… 10년 전부터 늦깎이 학생 검정고시 강의 나서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색소폰 연주로 '찾아가는 연주회' 재능기부 눈길
7년간 비래동 24통장 맡아 지역 사회 위한 헌신… 꾸준한 합창단 활동도
"경험과 재능을 나눌 수 있어 보람 느껴… 이웃에 나눌수록 가슴 벅차"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대전 대덕구 비래동 통장협의회 제24통장을 맡고 있는 문충식(75) 어르신에겐 '정년퇴직'이란 말이 무색하다. 여기저기서 그를 부르는 데가 많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과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충식 어르신이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지난 7년간 비래동 제24통장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지역을 위한 봉사를 진행했다. 넉넉히 감당해 낸 그는 이달(4월)을 끝으로 그 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일은 중·고교 검정고시 대비 국어 강사다. 국어 담당 중·고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그는 약 10년 전부터 퇴직 교원들이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그는 문해교육 보조강사 및 국어 강사로 늦깎이 배움에 나선 이들을 위한 국어 수업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 2회 검정고시 준비생들의 강의에 나서기 위해 수업자료, 예상 문제, 학습 과제 등의 제작은 물론 기출 문제 및 심화 학습 지도 등 현직 교사 못지않은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문충식 어르신은 "수강생 중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만 50~60대 늦깎이 배움에 나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께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질문도 많이 하시지요"라며 "1년에 딱 두 번 검정고시가 치러지는데 상반기에는 중등, 하반기에 고등 과정 등 시작한 지 1년 만에 합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대학 진학, 졸업을 하신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교육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어르신은 그간 교육 기회가 없어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 글자를 알려드리는 문해교육 보조강사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자 한 자 한글을 익히신 분들이 유창하게 책을 읽고 시까지 지어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라며 재능기부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한껏 드러냈다.

이 밖에 그는 이곳에서 성인 문해교육 보조교사는 물론 학생 상담, 각종 행사 때 차량 이동 서비스, 문제지 복사 등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에 나서고 있다.
문충식 어르신의 재능기부 열정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평소 다루고 싶은 악기였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망설이고 미뤄버린 색소폰을 배우기 위해 7~8년 전 지인 2명과 함께 연주 수업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한다.

연마(鍊磨)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반복적 수업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자 그는 '아름다운 색소폰 동호회'에 가입해 '찾아가는 연주회'에 참여하고 있다. 비록 아마추어 수준의 색소폰 연주이지만 청중들이 즐거워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인으로서 희열감과 삶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느낀다는 문충식 어르신은 여기에 하나 더 보태 합창단으로 재능기부 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한 문충식 어르신은 재능기부 활동과 이를 위한 연습시간과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온전히 쉬는 날은 토요일 단 하루뿐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국어 교육·색소폰 연주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갈 것이라는 문충식 어르신은 늦깎이 학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문을 두드려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문충식 어르신은 "경험과 재능을 나눌 수 있어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삶에 생기가 돕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은퇴 후 재능기부를 통해 인생 2막을 새롭게 펼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행복이 있지만, 인간의 가슴을 가장 벅차게 하는 건 나눔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문 어르신의 말씀처럼 봉사활동에 참여해 가슴 벅찬 위로와 감동을 느껴보는건 어떨까.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맛과 쉼이 공존하는 레스토랑

비래동 피아또지오

- 대전 대덕구 비래동로31번길 6, 2층(비래동 129-7) /042-710-6004
- 와규스테이크(부채살200g, 그린샐러드, 구운야채, 식전빵, 스프) 4만1000원 / 싱글폭립(등갈비, 그린샐러드, 새우튀김, 식전빵, 스프) 3만7000원 / 피자 1만5000원~1만9000원 / 파스타 1만3000원~1만5000원
- 영업시간:11:30~22:00(브레이크타임 15:00~17:00) 정기휴무일: 매주 화요일

50~60대 세대들이라면 경양식(輕洋食) 레스토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맞선 장소였기 때문이다. 낯선 이성 앞에서 격식 차리기에 급급해 땀만 뻘뻘 흘리다가 맞선 자리가 싱겁게 끝난 쓰라린 추억도 있을 것이다.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는 편하게 방문해 정통 이탈리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피아또지오(대표 이민섭)가 있다.

'피아또지오'는 이탈리어로 '아저씨 파스타'라는뜻으로 이민섭(38) 대표가 직접 지은 가게 이름이다. 우리가 흔히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고 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손님들도 격식을 따지지 않고 편안한 식사와 함께 쉬어가는 공간이길 바라는 이 대표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 집의 메인 메뉴는 스테이크와 폭립이다. 수비드(음식물을 정확히 계산된 온도의 물로 천천히 가열하는 조리법) 기법을 사용한 요리라 사전 예약이 필수다.

특히, 와규 부챗살을 사용하는 와규 스테이크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어서 그야말로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또, 새우 투움바 크림파스타 등 총 12개의 파스타 메뉴와 마르게리타 피자 등 4개의 피자 메뉴도 자신이 직접 개발한 소스 등으로 차별화된 맛을 추구하고 있다.

이민섭 대표는 요리와 전혀 관계없는 건축설계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다고 한다. 군 전역 후 외국인 셰프가 운영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당시 요리에 관심을 갖게돼 사장님의 권유로 주방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그곳에서 5년간 부단히 노력했고, 마침내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오픈해 5년간 이어오고 있다고. 최고의 쉐프로 자리잡은 이민섭 대표는 목표를 다 이뤘냐는 필자의 질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요"라며 "기회가 된다면 자체 개발한 소스, 육수 등의 제조유통업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소박한 희망을 내비쳤다.

보석 같은 백반 맛집

비래동 행복식당

- 대전 대덕구 비래동로15번길 2(비래동 127-29)/ 042-672-7571
- 백반·김치찌개·된장찌개·순두부찌개·청국장 8000원 고등어구이·동태찌개·돼지두루치기 9000원(2인이상) 오징어 두부두루치기·오삼불고기·갈치조림 1만원(2인 이상)
- 영업시간:10:00~22:00 / 정기휴무일: 매주 일요일

바야흐로 푸짐하고 자극적인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새롭고 특이한 맛에 궁금증이 생겨 여러 음식을 찾고, 다양한 맛을 맛보다가도 결국 돌고 돌아 결론은 한식 백반을 찾게 된다.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행복식당(대표 신성미)은 골고루 담고 있는 건강한 식재료의 조합, 오랜 시간 정성을 담아 천천히 조리한 음식, 조미료 대신 천연재료로 요리한 맛있는 맛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위 '어머니표 집밥'과 같은 한식 백반 맛집이랄까.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밥과 따끈한 국을 기본으로 오이무침, 깻잎 김치, 가지무침, 고추찜 등 소박한 재료로 만든 따뜻한 밑반찬이 올라오면 입안 가득 침이 고인다.

이 집은 점심시간이면 항상 자리가 없어 적잖은 웨이팅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늦은 점심시간에도 손님들이 꾸준히 들어올 정도로 소문난 백반 맛집이다. 특히, 양과 맛, 가격까지 모두 만족스러워 손님 대부분이 한 주에 여러번 방문하는 단골이다.

어린 시절부터 음식 만들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는 신 대표는 "음식업은 정직한 식재료 사용이 기본입니다"라며 "고춧가루는 고향인 전라도에서 직접 공수해 온 것을 사용하고 다소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사야 직성이 풀립니다"라며 신선한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음식 맛은 정성'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맛을 내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라며 "저 역시 제 가족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합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주는 감동을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무리하지 않기 위해 식당 규모를 줄여 2년 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는 신성미 대표는 "(제가)좀 편해지려고 줄였는데 전혀 (일이) 줄지 않네요. 편히 쉴 팔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웃으며 이야기를 전했다.

고공행진 물가에 음식 가격을 올릴 법도 하지만 최근 1000원씩 올린 것도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신성미 대표.

그는 "'밥집은 남기는 게 아니라 손님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말처럼 이윤보다는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변함없이 손님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의회

주목 이 조례

조대웅 의원

“멈춰” 공동주택 화재 사고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화재안전시설’ 추가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을 추가(신설)했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예방과 피해 감소를 통해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 의원은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을 추가한 게 골자다.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에 과하게 의존하면서 신체·심리·사회적 피해 방지와 해소를 위해서다.

전석광 의원

“반려동물? 이젠 반려식물 시대” 반려식물문화 조성·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덕구가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전시회·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반려식물을 통해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려식물이란 식용이 주목적이 아닌,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김기흥 의원

“장애인 13.5% 발달장애…지원 강화” 고용·직업 훈련 등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도록 했고, 복지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노력과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기준 지역 내 장애인 1만700여 명 가운데 13.5% 수준인 1440여 명이 발달장애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자 의원

경계선지능인 사회 적응에 마중물 자립 · 사회 참여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과 학습능력 등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덕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유승연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손길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우울감 안겨…지원 절실”

‘대덕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덕구에 살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했고, 또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당뇨 관리 비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당뇨로 힘들어하는 자녀 모습에 가족들도 우울감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대덕구의회는 2월14일 제274회 임시회 일환으로 지역 주요사업지인 장동문화공원과 석봉복합문화센터에 대한 현장 방문을 각각 진행하고, 이들 현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미비점 등을 파악했다.

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기고

꿀잼도시 대전 성공적인 계족산 시민공원 조성으로부터

이준규 의원

관광객에 의한 내실 있는 경제적 효과를 키우기 위해선 체류형 관광 인프라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대전시는 그 일환으로 대덕구 소재 계족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대전을 중부권 최고의 산림복지휴양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기존 장동산림욕장 일원 70만㎡(21만 평) 부지에 사업비 약 2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계족산 자연휴양림은 숲체험·문화지구, 산림휴양·숙박지구, 보전지구 등 3개 테마로 조성된다. 산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한 산림치유·휴식 공간, 숙박하며 체류가 가능한 숲속의 집, 연립숙박동과 숲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족산은 잘 보존된 산림뿐 아니라, 역사적인 유적지와 체험 자원을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특히 계족산 황톳길은 한국 관광 100선에 4회나 선정됐고 최근 맨발 걷기 열풍과 함께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국가지정 유산인 계족산성뿐 아니라 용화사·비래사 등 사찰이 위치해 역사적·종교적 볼거리도 풍성하다. 자연 산림을 그대로 활용한 장동산림욕장은 황토 놀이마당·유아숲체험원 등이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인근 장동문화공원·대청호 오백리길 등과 맞물려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 추진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아 걱정이 앞선다.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지만, 사유토지 매입 협의에 필요한 185억 원 마련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적정 시기에 절차 이행이 중요하다. 물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전시의 고민이 깊을 줄 안다. 하지만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문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그간 시의 균형 발전 전략에서 대덕구가 번번이 제외됐듯 이번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닌지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전체 균형 발전을 십분 고려해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고,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전시민을 비롯해 전국의 가족들이 계족산 자연휴양림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물며 대전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내 고향 중리 사랑, 장학사업으로 승화시킨다”

대덕구 중리동 2구 원주민장학회

2002년부터 22년간 249명 학생에게 1억290만원 장학금 지급
새마을운동 당시 주민 손으로 지은 마을회관 임대 수익으로 재원 마련
이병희 회장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사업 지속 펼칠 것”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는 20여년 넘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리동 2구 원주민장학회(이하 장학회, 회장 이병희) 소속 60여명의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곳이자 일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을 지켜오며 지난 200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회는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부지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 수익금을 활용, 지난 22년간 중리동 거주 대학생 131명, 고등학생 118명 등 총 249명에게 1억 290만원이라는 적잖은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이 같은 장학금 지급의 든든한 재원 역할을 해준 마을회관은 과연 언제, 어떻게, 어떤 사연으로 지어졌을까?

사실, 장학회 소속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2구, 원주민 등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장학회 태동은 범국가적으로 ‘새마을운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던 지난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덕군 회덕면 중리지역에는 제대로 된 길이 나고, 초가집 일색이던 마을에 하나둘씩 양옥집이 들어서는 등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다. 100여 가구가 살 정도로 비교적 큰 마을이었던 중리2구에는 마을회관이 없었다. 때마침 새마을운동으로 동네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마을회관 짓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이병희 회장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래와 자갈을 직접 나르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비벼 바르는 등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 직접 완성한 마을회관이라 더 애착이 갔습니다”라고 회상했다.

이후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마을 공동 소유가 된 마을회관은 건물을 임대해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삶의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

중리동 2구 원주민장학회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중리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수혜 대상자로 선발하고 있다.

또, 그간 중·고교생들에게도 지급해 오던 장학금을 정부의 교육 무상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생 10명을 선발해 1인당 70만원씩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 탓일까? 한때 수백 명에 이르던 원주민들이 생을 달리하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중리동을 떠나면서 현재는 약 60여명 정도만 이곳을 지키고 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마을회관 건축에 참여했던 20~30대 청년들은 어느덧 70~80대 노인이 됐다.

장학회를 이끄는 이병희 회장을 비롯해 한상운 부회장 등 임원진들과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을회관을 잘 보존해 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수익금을 온전히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보람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쉽게도 지난 22년간 중리동 2구 원주민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총 249명의 학생 중 진학 · 취업 이후 장학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한 학생은 2~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장학회 어르신들은 “우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상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며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잊지 않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베풂의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지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학회 구성원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 앞으로 운영 방향 등을 천천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상이 점점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여전히 주위엔 중리동 2구 원주민장학회처럼 이렇게 제 몫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 세상이 더 밝게 나아가는 것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연결법인인 경우 5. 31.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세 율 :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누진세율(0.9 ~ 2.4%) 적용**
- **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부서**
  - 전자신고 : 위택스 신고납부(www.wetax.go.kr)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차감명세서(외납법인용) 등
- **유의사항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미달세액의 10%, 4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당 해당세액의 0.022%

※ 법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 해야 함

문의 : 대덕구 세원관리과(☎042-608-6652)

전국 최초 도입, 대전소방본부 개발

병·의원, 약국,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카카오톡에서 확인하세요!

TALK

카카오 채널 추가 방법	카카오톡 채널 QR
TALK 카카오톡 실행 >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 > 채널 추가	바로가기 링크 http://pf.kakao.com/_sqxixks

Ch 대전소방 119 종합상황실 +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앱(Walk On)을 이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

걷기 좋은 건강도시 대전

참여대상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기간

2024년 12월까지

자유롭게 걷고! 목표 걸음 달성하고! 대전사랑포인트 받자!

걷기 챌린지 참여방법

01	02	03	04	05
어플 설치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커뮤니티 탭 선택	"대전광역시체육회" 검색 후 가입	하단 '챌린지' 탭에서 챌린지 '참여하기' 클릭	10만보 달성 후 '응모하기' 클릭

주최·주관 | 대전광역시체육회 DAEJEON SPORTS COUNCIL | 후원 |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 문의 | 042-250-305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중 한국 국적 7~18세자녀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업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 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

[초 40만원 / 중 50만원 / 고 60만원]

신청기간

2024.4.1.(월)~7.31(수)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대덕구가족센터 방문 신청
※6월중센터 이전예정으로방문전위치확인필수 (연축동 → 신탄진동)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사항

대덕구가족센터
042-639-2664(담당자 박스민)

대덕구가족센터 가족센터 Daedeokgu family Center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복지부 | 129
건보공단 | 1577-1000
심평원 | 1644-2000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129-연결 후 8번
의사 집단행동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이용 권고합니다.
경증환자 이용 시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국 상급종합병원(총 47개소)

서울권 (14개소)
①강북삼성병원 ②건국대학교병원 ③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④삼성서울병원 ⑤서울대학교병원 ⑥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 ⑦이화여자대학교외과대학부속목동병원 ⑧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⑨중앙대학교병원 ⑩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⑪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⑫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⑬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⑭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 (4개소)
①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②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③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④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 (5개소)
①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②분당서울대학교병원 ③아주대학교병원 ④한림대학교성심병원 ⑤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충남권 (3개소)
①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②충남대학교병원 ③건양대학교병원

전북권 (2개소)
①원광대학교병원 ②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 (3개소)
①전남대학교병원 ②조선대학교병원 ③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강원권 (2개소)
①강릉아산병원 ②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 (1개소)
①충북대학교병원

경북권 (5개소)
①경북대학교병원 ②계명대학교동산병원 ③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④영남대학교병원 ⑤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 (8개소)
①동아대학교병원 ②부산대학교병원 ③양산부산대학교병원 ④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⑤학교법인울산공원학원울산대학교병원 ⑥경상대학교병원 ⑦학교법인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⑧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사람을 더하세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생활 속 도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일자리 정보안내	1544-3388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청소년·청년·여성의 고민

청소년상담 (전화상담/사이버상담/문자상담)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카카오톡/페이스북/앱/1661-5004 문자상담)	다들어줄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푸른나무재단 전화상담)	1588-9128
국방헬프콜 (전화상담/사이버상담/APP상담)	1303
온통청년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www.youthcenter.go.kr	
여성긴급전화 (전화상담/사이버상담)	1366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